**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새사람의 창조주**

**9/22 월**

**창 1:25** 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제 종류대로, 가축을 제 종류대로,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.

**엡 2:15** 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.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,

**행 2:1-6 (4-5)**  
**1** 오순절이 되자, 그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었는데,  
**2** 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,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,  
**3** 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.  
**4** 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,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갖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.  
**5** 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,  
**6** 이러한 소리가 나자, 무리가 몰려왔으며, 각 사람은 자신들의 지역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.

**행 10:11-16 (15)**  
**11** 하늘이 열리면서,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와 네 귀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.  
**12** 그 안에는 땅의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었다.  
**13** 그리고 그에게 “베드로야, 일어나 잡아먹어라!”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.  
**14** 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였다. “주님,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.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.”  
**15** 그러자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. “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.”  
**16** 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, 즉시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.

**9/23 화**

**엡 2:15-16**  
**15** 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.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,  
**16** 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

**히 2:14** 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,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.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,

**롬 6:6** 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,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.

**롬 8:3** 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,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

**요 1:29** 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.

**갈 5:24** 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

**요 12:31** 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,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.

**9/24 수**

**엡 2:10** 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.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.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,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*엡 3:10** 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

**고전 1:30** 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,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,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.

**고후 5:17** 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.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. 보십시오, 새것이 되었습니다.

**롬 5:18** 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,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.

**롬 6:19, 22**  
**19** 여러분의 육체가 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.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,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.  
**22** 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,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.

**롬 8:10, 23**  
**10** 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,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,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.  
**23** 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,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.

**빌 3:21** 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,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.

**9/25 목**

**엡 2:14** 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,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,

**골 2:14** 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,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,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.

**골 1:15-20, 28 (16-18, 28)**  
**15** 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,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.  
**16** 왜냐하면 만물,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,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,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,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,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.  
**17** 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,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.  
**18** 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. 그분은 시작이시며,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.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 
**19** 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,  
**20** 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,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.  
**28** 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,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.

**9/26 금**

1. **골 3:15** 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.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.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.
2. **엡 4:3, 22-24**  
   **3** 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.  
   **22** 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,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,  
   **23** 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 
   **24** 새사람,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.
3. **골 3:12-15**  
   **12** 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,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.  
   **13** 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,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.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,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.  
   **14** 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.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.  
   **15** 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.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.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.
4. **골 2:14-18**  
   **14** 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,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,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.  
   **15** 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,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.  
   **16** 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,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.  
   **17** 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,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.  
   **18** 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,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.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들에 사로잡혀,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
5. **9/27 토**
6. **골 3:10-11**  
   **10** 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.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  
   **11** 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, 할례자와 무할례자나, 야만인이나, 스구디아인이나, 노예나, 자유인이 없습니다.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.
7. **엡 2:19-22**  
   **19** 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,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.  
   **20** 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.  
   **21** 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,  
   **22** 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.
8. **엡 4:1-6**  
   **1** 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.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.  
   **2** 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,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 
   **3** 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.  
   **4** 몸이 하나요,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.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.  
   **5** 주님도 한 분이시요, 믿음도 하나요, 침례도 하나입니다.  
   **6** 하나님도 한 분이시며,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.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,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,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.
9. **9/28 주일**
10. **롬 5:1** 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.
11. **사 9:6-7**  
    **6** 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.  
    **7** 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리니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의로 왕국을 굳게 세우시며 붙드시리라.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.
12. **고전 1:10** 형제님들,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.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,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.
13. **고전 12:12** 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,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,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.
14. **롬 12:4-5**  
    **4** 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,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.  
    **5** 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,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.
15. **롬 15:6** 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.